

타이베이서 중국공산당 4억 탈퇴 경축 대만 정계 지지

[밍후이왕] 10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파룬궁수련자 1천여 명이 ‘중국공산당 4억 탈퇴 경축’ 행사를 개최하자 여러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지를 표했다.

2004년 말 따지원(大紀元) 시리즈 사설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評共產黨)’이 발표된 뒤 중국에서 삼퇴(중공의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 물결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4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탈당 사이트(tuidang.org)에서 삼퇴했다.

이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멜버른, 아일랜드, 한국, 밴쿠버를 포함한 수십 개국 도시에서 4억 삼퇴 축하 행사가 열렸다.

대만 파룬따파 협회, 진상 알고 박해에 참여하지 말 것 호소

집회에서 대만 파룬따파(法輪大法) 불학회 이사장 샤오쑹산(蕭松山) 교수는 “강택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지 23년이 됐다”며 “중국공산당(중공)은 아직도 수련생들을 박해하고 있고 심지어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해 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언론과 인터넷을 철저히 감시해 일반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들에게 “파룬궁 박해에 이용되지 않도록 진상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샤오쑹산 이사장은 또한 대만 국민이 도덕적 용기를 발휘

해 삼퇴를 지지하고, 중국 본토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대만인들이 삼퇴의 의미를 알고 중국인들에게 각종 방법으로 삼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대만 중국공산당 탈당센터 대표 류빙화(劉秉華)는 이어서 대만 탈당센터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 파룬궁수련자들이 지난 10년간 수련인의 선심(善心)에 따라 무보수와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대면해 진상 알리기, 인터넷, 전화, 휴대폰, 팩스 등 방식을 이용해 중국인들에게 진상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대만 탈당센터 자원봉사자들은 한 달에 약 2만 명의 중국인들이 삼퇴하는 것을 돕고 있다.

대만 파룬궁수련자 박해구조협회 이사장 쉬카이슁(許凱雄) 교수는 “삼퇴를 선택한 모든 사람은 침묵을 깨는 선택을 했다”며 “진상을 안 후 파룬궁

수련자를 괴롭히지 않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중국 경찰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 탈당센터 자원봉사자 청시(程曦)는 중국에서 자랐다. 그녀는 삼퇴 운동은 중국 민중이 중공의 악을 인식하고 악의 조직을 떠나 재난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멸중공(天滅中共)은 하늘의 뜻이며 중공을 해체해야만 세계가 평화로운 환경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정계인사, 파룬궁에 깊은 경의 표해

이날 집회에는 많은 정계인사들이 참석해 지지연설을 했다. 왕싱환(王興煥) 대만 기진중앙당(基進中央黨) 비서장은 먼저 파룬궁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파룬궁에 대해 가장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희생으로 중국공산당의 비인도적 범죄를 폭로하고 있으며, 그들은 전 세 (2면에 계속)



◀ 10월 22일 오후, 파룬궁수련자들이 타이베이 시청 광장에 모여 ‘중국공산당 4억 탈퇴 경축’ 행사를 개최하자 여러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1 면의 계속) 계에서 가장 단호한 반공 역량, 반공의 선구자입니다.”

왕성환 비서장은 중국공산당이 저지른 종교 박해의 본질은 그것 자체가 세계 최대 사이비 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프랑스에서 많은 수련자들을 접했고 그들에게 매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대만인들도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받고 있기에 파룬궁수련자, 티베트인, 홍콩인, 위구르인에게 더욱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중공에 의해 박해 받는 사람들과 같은 전선에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베이 시의원 린잉명(林穎孟)은 연설에서 “중공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평화를 미화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중공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중국인 4억 명이 탈당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숫자”라고 말했다.

린잉명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파룬궁수련자들이 폭로한 생체 장기적출 등 진상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만행을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생체 장기적출을 믿게 됐다고 말했다.

린잉명은 “중공의 폭정은 모든 사람의 삶을 갉아먹을 수 있다”며 “대만 국민들도 각성하고

함께 중국 인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에는 중국인이 4억이나 삼퇴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겠지만 오늘 이렇게 발생했다”며 “함께 노력하면 공산당이 없는 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베이 시의원 장즈밍(江志銘)은 “파룬궁은 100여 개국에 전파됐고 수련자들은 전 세계에서 진상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이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인식하게 했고, 더 많은 중국인이 중공을 탈퇴하고, 세계 많은 사람이 중공을 외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타이베이 시의원 리젠창(李建昌)은 수련자들이 사람들에게 중국공산당의 악의 본질을 인식하도록 진상을 열심히 알린 것에 찬탄을 보내며 “파룬궁에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리젠창은 “대만 각 지역 학교나 공원에서 연공하는 수련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며 “그 고요함은 침묵이 아니라 거대한 힘이며 행동으로 전 세계 수백 개 국에 진상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수련자들을 존경한다”며 “대만의 모든 공동체와 구석구석이 파룬궁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베이 시의원 홍젠이(洪建

益)는 “4억은 대만 인구의 20배에 달한다”며 “4억 중공 탈퇴는 집권 악세력의 몰락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중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지지한다”며 “공산당을 전 세계에서 종식시키고 인권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글로벌 중국공산당 탈당센터’가 글로벌 서비스망을 통해 10여 개국 중국인들의 삼퇴를 돕고 세계에 진실한 메시지를 전파한 데 감사를 표했고, 중국공산당은 즉시 생체 장기적출을 중단하고 모든 수련자를 선하게 대해야 한다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타이베이 시의원 장마오난(張茂楠)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 정권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 수단을 쓰는데 그것은 정부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정권은 사악한 정권이고, 생체 장기적출 범행을 저지르는 사악한 정권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진상을 알려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유의 가치를 믿으며 파룬궁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 대만 파룬따파 이사장 샤오쑹산



▲ 집회에서 연설하는 대만 중국공산당 탈당센터 대표 류빙화가



▲ 대만 파룬궁수련자 박해구조협회 이사장 쉬카이슌 교수



▲ 연설하는 태복 이 시의원 리젠창

한국지엠 한교진 부장의 인생전환

[명후이왕] 어떤 사람은 한번 태어나 두가지 인생을 살아간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_ 한국 지엠 (GM) 한교진 부장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형용한다. “ 한 사람 몸에서 두 가지 인생사는 것을 보았다.



■ 부친의 예언

주역을 연구하신적이 있는 아버지는 한교진에게 말씀하셨다. “마흔이 되면 너의 운명은 개변될 것이다. 나는 9월에 이 세상을 떠날 거고...” 그후 아버지는 과연 9월에 돌아가셨다. 그도 역시 아버지 말씀대로 만 40세가 되던 해, 인생에서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그는 회억하며 말했다. “2002년 금융위기로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주 힘들었지요. 우연히 어느날, 저는 북한산에서 조용히 연공하는 한무리 사람들을 보게되었는데 그들은 파룬궁을 연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서 파룬궁수련자가 1억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련하고 있는것에 대해 신기하게 여겨졌고,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은 수련자에 대해 탄압한다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의 직감으로는 만약 1억명이 되는 사람이 수련한다면 그럼 이 공법은 반드시 대단한 메커니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법륜 (轉法輪)> 은 구절마다 내심을 촉동시켰어요

한교진은 파룬궁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연공장에 가서 동작을 배웠고, 동시에 파룬따파 홈페이지에서 ‘전법륜 (轉法輪)’e-book을 다운받아 읽었다. 나흘 만에 다 읽은 후 그는 깜짝 놀랐다. 그를 오래동안 곤혹 시키던

의혹이 이 책중에서 모두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책속의 내용이 구절마다 모두 저의 마음을 촉동시켰어요. 저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게됐고, 심지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마저 변화가 발생하게 됐어요. 회사가 부도난 후 저는 오래동안 방황하면서 수많은 책을 보고 다시 시도해봐도 모두 실패했지요. 그러나 파룬궁은 강제성도 없고 학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리가 없고 순전히 개인 수련임에도 오히려 저에게 이런 변화가 생기게 했는데 이는 정말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 처음 공을 배운후 신체가 가볍게 변하다

한교진은 어려서부터 가부좌와 수련에 관심이 있어 여러곳을 찾아다녔다. 집부근에서 돈 들여 배운 호흡법과 기공 모두 뚜렷한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처음으로 파룬궁동작을 배운 그날, 손바닥 가운데 전기가 있는 느낌이 들었고, 온몸이 더워났어요. 비록 격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저의 온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연공을 다하고나니 저의 신체는 가벼워졌어요.” “저에게 연공을 가르쳐준 수련생에게 고마운 생각이들어 선물을 사드렸는

데 거절당했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파룬궁제자는 공을 가르침에 어떠한 레물과 보수도 받지 않으며, 앞으로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공을 가르쳐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애주가의 결단

수련을 시작한후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 한교진은 말했다. “수련을 시작한지 며칠 안돼, 저는 갑자기 술이 싫어지는 거 있죠. ‘전법륜 (轉法輪)’을 읽으면서 비록 다시는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했고 그다지 특별히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것은 점차 술생각이 없고 서서히 술자리도 피하게 되더라구요.”

유명한 술꾼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소식은 아주빨리 회사에 퍼졌다. 회사에서 회식할 때 동료들이 아무리 술을 권해도 그의 반응은 요지부동이였다. 1년후 동료들도 더는 술을 권하지 않고 자연히 그에게 음료를 부어주었다. 그는 말했다. “술 뿐만 아니라 담배역시 이렇게 끊었어요. 이전에 여러차례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해 봤지만 모두 실패 했거든요. 파룬궁을 수련한후 담배도 자연히 아주 쉽게 끊었어요.” 제일 먼저 술과 담배를 성공적으로 끊은 직원으로서 모두들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는 회억하며 말했다. “모두들 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4면에 계속)

(3면의 계속) 하면서 비결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의 수련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후로 동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오! 파룬궁!’라며 인사합니다.”

■ 독사 팀장이 평온하게 변한 비결

직장에서 철두철미한 한교진은 빈틈없는 관리자였다. 팀원들의 관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보니 심지어 ‘독사’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그는 온화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팀원과 소통하는 관리자로 변했다.

“저는 수련을 통해 대방을 질책 혹은 추궁하지 않을 때 소통창구가 자연히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리자로서 한교진은 만약 사사건건 일마다 모두 가서 관리하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팀원들로 하여금 피동에 처하게하는 느낌을 주기에 관리자 역시 아주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채용한 방법은 단지 시작에 팀원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원칙적인 부분만 잘 소통한후 팀

원들에게 일을 맡겨 처리하게 했는데, 대방을 믿고 이렇게하면 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기에 그로 하여금 더욱 평온해지게 합니다.”

그는 내심의 용량을 넓히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임을 발견했다. 한번은, 한교진의 팀원이 고가 차량을 실수로 파손시켰는데 조성된 손실이 매우 컸다.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했기에 그는 팀원을 대신해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수련을 하면서 저는 일에 부딪치면 우선 다른사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팀원을 위해 생각하고, 최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보호해줬습니다. 해결책은 없지만 제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며칠 후 경고장 받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팀원을 보호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다 보니 그 후 팀 합작도 더 좋게 변했습니다.”

■ 위기로 치달았던 가족은 평온을 되찾았다

수련을 시작한후 한교진의 아내와 딸은 모두 친히 그의 변화를 느꼈고, 본래 위기로 치달았던 가정도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는 말했다. “예전에는 아내와 다투기만 해도 며칠씩 서로 말도 안 했고 말하기만 하면 다투는데 이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간혹 아내가 화를 내더라도 저는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만 하는데 그러면 아내도 아주빨리 평온을 되찾고 더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딸마저 친구들에게 아빠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설거지, 뒷정리, 세차, 휴일 대청소는 한교진의 몫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무일을 하기 시작한다.

나이 마흔에 대법을 수련한 후 새로운 인생을 얻은 한교진 씨. 술담배를 잃은 대신, 충만한 활력과 깊고 따스한 마음을 얻었다.

■ 연변박해소식 ■

■ 연길시 여가호텔 1 층에서 ‘세뇌반’을 꾸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다

2022년 9월말 10여일간 여가호텔 1 층에서 ‘세뇌반’을 꾸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여러명 파룬궁 수련생이 강제적으로 세뇌 박해를 받았다.

■ 화룡시에서 불법으로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의 최신 소식

화룡시 팔가자 6명 수련생은 연길 ‘9.3’ 70년 경축을 이유로 불법으로 납치됐다. 선후로 5명이 석방되어 귀가하고, 손경국(孙庆菊) 한 사람만 돈화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현재 화룡구치소에는 아직도 화룡수련생 리홍(李红)과 리걸(李杰) 두 자매가 갇혀있다.

■ 룡정시공안국 여러개 파출소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소란하다

최근, 룡정시 공안국 룡문(龙门) 파출소, 안민(安民) 파출소와 연길시 공안국 진학파출소, 조양파출소 등 기타파출소에서 전화로 여러명 대법제자를 소란해 전화와 지점을 물었다.

■ 연변주 연길시와 룡정시 여러명 파룬궁수련생 소란받다

2022년 10월 4일, 연길시 하남파출소에서 파룬궁수련생 탕연풍(唐艳风)의 남편과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모친의 최근사진을 요구하면서 아이의 공작상황을 물었다.

중공 사법부장 탕이쥘, 파룬궁을 박해한 죄행

[명후이왕] 2022년 7월 20일 반박해 23주년기간, 38개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업데이트된 박해 가해자 명단을 각 정부에 제출해 명단에 있는 사람들(및 그들의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촉구했다. 중공 당 지도부 서기이자 현임 사법부장,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위원 탕이쥘도 명단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제일 앞섰다.

탕이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탕이쥘 (唐一軍), 남성, 한족, 1961년 3월 출생, 산둥성 쥬(莒) 현 사람, 직함 또는 직위: 2010년 4월 ~2011년 2월: 절강성 녕파시 당 위원회 부서기, 정치 및 법률 위원회 부서기; 2018년 1월 ~2020년 4월: 료녕성 당 위원회 부서기, 주지사, 성 정부 당 지도부 서기; 2020년 4월 ~ 현재: 당 지도부 비서, 사법부장,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위원

1 파룬궁을 탄압하는 정책 및 활동을 수립하고 시행

탕이쥘이 사법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법무부는 파룬궁을 대상으로 몇 가지 박해 정책을 시행하고 공식화했다.

2020년 3월 25일, 사법부 웹사이트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법치국가 총괄위원회에서 발행한 '법치에 따른 농촌 지역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농촌의 이단 조직(당이 파룬궁에 잘못 적용한 꼬리표)을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파룬궁은 이단이 아니다. 그러나 중공과 정치법무위원회는 사법부가 파룬궁에 대한 새로운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의견을 인용하고, 조치를 도입했다.

2021년 8월 24일 사법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도소 채점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새롭게 개정된 교도소 재소자 평가 규정은 처음으로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했다. 그 규정 제 23 조 5 항에서 파룬궁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파룬궁 수련을 이른바 '평가 기준 미달'로 규정하고, 신념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불법으로 갇힌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도록 허가했다.

2 교도소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고문

중국의 법체계에서 교도소는 사법부 또는 성(省) 사법부에 소속된 교도소 행정국이 감독한다. 감옥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가두고 박해하는 주요 장소다. 불법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갇힌 수련생 대부분은 온갖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를 당한다. 사법부와 산하 교도소 행정국은 정기적으로 수감자들을 선동하여 교도소 내 파룬궁 수련생들을 고문하고 있다. 그 결과 교도소에서 고문당해 죽거나, 다치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3 탕이쥘은 료녕성에서 재임하는 동안(2018년 1월 ~2020년 4월) 파룬궁을 겨냥한 중공의 박해 정책을 시행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탕은 료녕성 당 위원회 부서기, 주지사, 성(省) 정부 당 지도부 위원회 서기를 지냈다. 그의 재임 기간 료녕성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 사건이 크게 늘었다. 료녕성은 전국범위에서 파룬궁 박해가 가장 엄중한 몇개성의 하나다. 명후이왕에 따르면 2019년 1월 ~12월까지 적어도 445명 파룬궁수련생이 납치되고, 연령이 가장 높은 자는 83세이고, 12명 파룬궁수련생이 박해중 세상뒀다.

4 탕이쥘이 절강성 녕파시 정치법률위원회 서기로 재직하는 동안(2010년 4월 ~2011년 2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탕이쥘이 녕파시위서기 임직기간 10달 간에 녕파시에서 적어도 위융위안(虞永元), 리야링(李亞玲), 스샤오잉(史孝英), 위즈잉(余志英), 잔펑리(詹鳳莉), 웨슈핑(岳秀平), 위징페이(俞靜飛), 위쥘페이(俞君飛), 쑤징(孫晶), 홍제징(洪潔靜), 장푸밍(張福明) 등 10여명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되었다. 적어도 위징페이, 위쥘페이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송징, 홍제징, 장푸밍등 5-6명이 세뇌반에 납치돼 세뇌 박해를 받았다.

5 결말

위의 사례는 탕이쥘이 사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임하는 동안 발생한 파룬궁 박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실 중공 당국의 정보 봉쇄로 인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박해 사례와 내용이 더 많다. 탕이쥘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살은 죄

[명후이왕] 나이가 들고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 어릴때의 인식

내가 기억하기로는 ‘문화혁명’ 후기였는데 당시의 농촌에는 전등이 없어 등잔불을 사용했다. 여름철 저녁이면 이웃들이 모여 서늘한 바람을 쐬며 이야기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치는 전통문화 이야기가 많았다. 사극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매일 밤 나오는 이야기는 중복되는 게 없었고, 모두 선과 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인간세상에 와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유일한 출로임을 믿게 된다.

내게는 사촌누나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소개해주신 남자 친구와 약혼했다. 직업이 있는 이 남자친구는 사촌누나가 직업이 없는 것이 싫어 파혼하려 했다. 성격이 강했던 사촌누나는 체면 때문에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이 일은 내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이후 나는 자살의 옳고 그름을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인간세상에 와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온갖 굴곡과 원수를 만나는 일을 피할 수 없기에 오직 고통을 참으면서 일을 잘하고 갈등을 잘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자살은 잘못된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자살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최초 소망에 위배되며 인간세상에 온 책임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 나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인내력과 고생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 전통문화이야기를 공부한 후의 인식

2003년 명후이왕을 접해 대량의 전통문화 이야기를 읽었다. 전통문화는 중국공산당이 거둬 공언한 봉건 미신이거나 봉건 통치자가 민중을 우롱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선량한 본성을 일깨우고 강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통문화에 대조해 봐야만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 전통문화는 사람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이다.

옛 사람들이 자살을 어떻게 보는지 많은 고서에는 그들이 직접 겪은 신기한 경험담이 기록돼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그냥 이야기라고 한다. 고서 ‘과보유편(果報類編)’ 하권에는 각종 방식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지옥의 상황이 기록돼 있다. 이야기는 진강(鎭江) 사람 장대(張大)가 양주(揚州)에 머물다가 강희(康熙) 7년 5월에 병사해 염라대왕을 만나는 내용이다. 염라대왕은 사람을 잘못 잡았다며 “네가 여기까지 온 김에 이곳 이야기를 인간세상에 전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한 귀족에게 도시 구경을 시켜주라고 명령했는데 성문 현판에는 ‘자살’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자살한 많은 망령을 보았는데 한 자 남짓한 혀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라고 했다. 매일 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다시 목을 매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후 많은 망령을 만났다. 몸이 붓고 옷이 다 젖은 망령은 물에 빠져 목숨을 끊은 귀신이라고 했다. 또 어떤 망령은 목이 부러지거나 일곱 구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생전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독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

라고 했다.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생전의 죽은 방법대로 다시 행해야 했는데 매우 고통스러웠다. 망령들은 또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우리는 살아 있을 때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은 뒤 이렇게 고통스러워질 줄은 몰랐어.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장대는 “그 망령들이 언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귀족이 말했다. “안 된다. 염라대왕 전 앞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망령은 거의 없다. 사람 몸은 얻기 어려운데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자살하다니. 이 사람들은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세간에서 선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한 은혜를 저버렸고, 현세에서는 3년간 부모가 키워준 덕을 저버렸다. 염라대왕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기에 축생도(畜生道)로 판결해 사람 몸으로 환생하기 어렵다.” 이 장면을 다 본 장대가 염라대왕에게 보고하자 염라대왕은 “인간세상으로 돌아가 이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큰 소리 나게 탁자를 두드리자 장대는 다시 살아났다! 전통문화에서 분명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살을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 파룬궁 수련자는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파룬궁 수련자는 법공부와 수련을 통해 자살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공산당이 2001년 천안문 광장에서 ‘분신자살’ 사건을 일으켜 파룬궁을 비방했는데, 수련자들은 한눈에 거짓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역사상 단 한 번도 분신자살을 통해 승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사람과 자신, 사회에 대해 조금도 이롭지 않다. 파룬궁 수련자는 자살이 죄라는 하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어찌 일부러 죄를 범하겠는가?